



“영원 꿈꾸며 공동체가 만든 영혼의 대지미술”

김유정의 ‘제주도 산담 연구’
제주인 자연관 스민 조형물
경계 의미 축조 발달과 달리
하늘의 삼원 원리 땅에 적용
600여 년 유적 사라질 처지

제주에서는 무덤을 ‘산’이라고 부른다. 산처럼 봉긋한 데서 그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이 무덤에 돌담을 두른 것이 ‘산담’이다. 미술평론가인 김유정 제주문화연구소장은 이 산담을 ‘대지미술(Land Art)’로 명명했다. 산담은 공동체가 뭉친 집체적 프로젝트로 완성되는 하나의 건축물이자 상징적 조형물로 지형을 이용한 모양과 높낮이, 봉분 모양에 따른 형태와 선의 동세, 비례의 안정성과 기술기의 진

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제주인의 자연관처럼 손을 댄 듯, 안 댄 듯 시간에 내맡겨져 있는 점도 특징이라고 했다.

김유정 소장이 ‘대지미술, 영혼의 집’이란 부제 아래 직접 찍은 사진을 더해 ‘사라지는 제주 최고의 유적’인 산담 이야기를 풀어낸 ‘제주도 산담 연구’(제주문화연구소, 2만 5000원)를 출간했다. ‘산담 시리즈’ 두 번째로 돌담의 시작과 세계관, 제주 장법의 역사, 죽음과 산담, 잊혀져가는 장례문화 등으로 구성됐다.

그는 산담이 발달이나 장식처럼 경계만을 생각해 축조한 돌담과는 형성 원리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유가의 천지인 사상, 도교적 토지사상, 민간신앙의 요소까지 투영되어 있는 산담은 하늘의 삼원(三垣) 원리를 땅에 적용한 것으로 봤다. 이때 하늘의 원리는 산담만이



아니라 지상의 원담, 축담, 성담 등 담을 지칭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특히 저자는 천지인 사상과 연관해 원(봉분)은 하늘, 관재의 칠성판은 죽음의 상징이자 장수를 기원하는 북두칠성(별), 사각(산담)은 땅을 각각 의미한다고 했다.

산담은 산 자가 죽은 자에 대해 베풀 수 있는 ‘계획적인 기념물’이라는 점에서 유한한 우리 자신이

영원하기를 꿈꾸는 표상에 해당된다. 영속성이나 최소한의 지속성을 위한 표현으로 기념물을 세우기 때문이다. 산담은 제주의 죽음문화에 대한 비증을 보여주며 공포를 반감시키는 지혜의 산물이자 기억의 장소로 우리의 풍경 안에 오랜 시간 자리해왔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가문의 영광이었던 무덤도 하나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제주의 대표적 경관으로 꼽히던 산담도 다르지 않다. 저자는 “무덤을 이장해 사체나 유골이 없게 되면, 법률적으로 더 이상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산담들은 빠르게 없어질 것”이라며 “600여 년의 세월 동안 조성된 조상들의 유적”을 보존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파괴되는 걸 그냥 지켜봐야 하는지 해답을 제시해야 하는 마지막 기로에 있다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제주 신화 가문장아기 팝아트로 탄생

백유 작가 미국 전시 잇따라
‘K-아트 바람’ 50인전 초대

국내 작가 50인 초청 ‘K-아트의 새로운 바람(K-Art New Wind)’ 미국 전시에 제주 백유(사진) 작가가 초청돼 제주 신화 주제 팝아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 전시는 K&P 갤러리 뉴욕에서 1~2부로 나눠 진행 중이다. 한국 유망 작가를 세계 미술시장 중심인 미국에 소개해 K-아트 붐을 일으키기 위한 취지로 기획돼 “작가 경력이나 배경보다는 세계 미술시장의 조류에 걸맞는 작품성, 독창성과 개성을 가진 중견 작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선정했다.

백유 작가는 1월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2부 전시에 제주 무속신화인 삼공본풀이에 나오는 ‘가문장아기’를 주제로 창작한 팝아트 작품을 출품했다. 그는 ‘가문장아기’가 한국의 전통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도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서정과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라고 했다. 자신의 여성성을 긍정



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매력적인 주인공으로 여성들의 삶이 더 구체적이고

당당해질 수 있는 표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K-아트의 새로운 바람’전은 2월부터는 캘리포니아 산마리노의 베리타스 갤러리 LA로 옮겨 릴레이 전시를 이어간다.

백 작가는 앞서 K&P 갤러리 뉴욕에서 회화, 조형, 사진 등으로 개인전을 가졌고 뉴저지의 러시아 뮤지엄 그룹전, 마이애미 아쿠아아트페어 참여 등 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2019년부터는 제주 한라산소주와 함께 ‘4·3 동백에 디션’ 작업을 벌이고 있고, 프로골퍼와 가수 한영애의 의상에 독창적인 그림을 그려 넣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벌초·제사 남성의 성 역할 규범 재생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보고서
“제주 남성문화… 기초 연구”
“혈연 관계 기반한 ‘권당문화’
남성 중심적 연대 등에 영향”
학교의 성인지적 교육환경 등
세대 특성 고려 정책과제 제시

제주지역은 조상의 벌초, 명절 제사 등 제례를 둘러싼 문화배경 속에서 ‘남성의 성 역할 규범’이 만들어지고 재생산되는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계중심의 가부장적 혈연관계에 기반한 친인척 관계인 ‘권당문화’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대표적인 문화로 ‘남성 중심적’ 연대와 인적 네트워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실시한 ‘제주지역 남성문화에 대한 기초 연구: 세대별 성 역할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이해웅, 김준표, 고승환, 손태주) 연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제주지역 남성문화에 대한 연구가 거의 부재한 현실에서 제주에 거주하는 다양한 직업군 남성도민 36명에 대한 심층면접에 바탕해 처음으로 남성들의 성장과정 전반에 걸친 성 역할 인식 변화 양상을 세대별로 드러내고, 남성성의 의미 구성과 성 평등 정책 수요를 파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 역할 인식 차이에서 40~50대는 어렸을 때 가족 내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요구받는 반면 30대는 전통 성역할 교육 방식이 균열되기 시작하고, 20대는 상대적으로 성 차별하지 않는 가족 교육을 받고 자랐다. 제사 의례는 간소화되고 있으나 남

성의 의례 수행 주제 행위자 역할은 여전했다. 이에 40~50대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부모 세대 생존 때까지 맞추겠다는 반면 20~30대는 제사문화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세대를 막론하고 ‘장남’과 ‘아들’의 의미가 강조되고 벌초, 제사, 재산상속과 연결돼 장남과 기타 아들의 서열 역할을 구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내 선후배 위계질서와 성별 분리를 강조하는 놀이문화를 접하며, 청소년기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경험과 성인기 남성중심 연대의술 문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세대별로 공통적이었다. 동시에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인 프레임에 대해서는 전통적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이와 함께 세대와 상관없이 여자인 친구, 여성 동료, 배우자 등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사람과의 만남과 교류, 성평등 관련 일이나 활동 경험 등이 성평등 실천 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직장 내 성차별 구조에 대한 인식 차이로 연결됐다.

연구진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성 세대별 특성별을 고려한 5대 영역의 정책과제와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학교의 성인지적 교육환경 조성(10대~20대 중반), 가족 구성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30대 이상), 전통문화의 대안적 계승과 성인지 교육 접목(40대 이상), 성평등한 근로환경과 여가문화 조성(세대별, 특성별), 남성 세대별 성평등 정책과 캠페인 참여 활성화(세대별, 특성별)가 그것이다.

민무속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은 발간사에서 “이 연구는 제주지역 남성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향후 다양한 남성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과제와 지평을 열어주는 양적 질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서 시기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추자에술섬 프로젝트’ 3인 제주발 작업

김남표·하석홍 작가 전시
민병훈 감독 장편 상영회

2019년부터 ‘추자에술섬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김남표·민병훈·하석홍 작가. 이들이 새해 제주 섬에서 길어올린 창작물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김남표 작가는 현재 서울 광화문 교보아트스페이스에서 ‘제주도를 그리다’ 전(1월 8~2월 28일)을 진행 중이다. 사생을 통해 새롭게 화폭에 담은 ‘제주도’로 ‘인스턴트 랜드스케이프’ 시리즈의 ‘검질’, ‘에일바다’ 등이 나왔다.

하석홍 작가는 대구 갤러리미르에서 ‘하석홍의 테오리아(Theoria)’ 전(1월 10~2월 28일)을 열고 화산석 주제 2022년 신작 1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테오리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최선”이라



하석홍의 ‘리플렉션(reflection)’

고 불렀던 ‘관조’를 의미한다.

민병훈 감독은 제주 율로케이션으로 제작된 두 편의 장편영화인 ‘기적’과 ‘팬텀’ 상영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감독과의 대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상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진선희기자

승진 진급

부이사관 좌 임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해군ROTC 19기)	농협중앙회 상무 변 대근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상무 (해군ROTC 20기)	사무관 오 윤창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장 (해군ROTC 21기)	해양경찰 경정 강 성운 1505 함장 (해군ROTC 24기)	제독(해군준장) 김 영수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 (해군ROTC 25기)
--	---	---	--	--

영예로운 승진과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동우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주대학교 해군 ROTC 동우회 회장 이재은 외 회원 일동